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	slutt.
		배포일시	2020. 6. 18(목) 총 2 매	ने अस्ति पिरेन्यम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도곤, 사무관 손상희, 주무관 김관호 •☎ (044) 201-4219, 4231, 4230	
	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태휘, 서기관 김태종 ·☎ (044) 200-4450, 4455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.

- 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·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**2021.1.1. 소멸**될 **마일리지**의 유효기간을 **1년 연장**하여 2022.1.1.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 -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.12.31.
 이나 1년 연장하여 2021.12.31.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- □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**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**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**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 하다**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- □ 이에,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**국제선 운항**이 **급감**(△96%, 전년대비 6월2주차)하고 **타국 입국이 제한**되는 상황에서 **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**하고, 대한항공·아시아나 항공과 마일리지 **유효기간 연장을 협의**하였습니다.

- □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**모니터링을 강화**하여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 -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**마일리지 유효기간**을 **확인**하고 효율적으로 **사용**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**안내**할 예정입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손상희 사무관(☎ 044-201 -4231),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김태종서기관(☎ 044-200-44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